

홋카이도교육대학교 하코다테교

유학생에 의한 하코다테 레포트 :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장현희 김소연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 한 켠에 남아있다. 인연, 가족, 친구,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는 장소가 있다. 아름다운 '그 곳'이었기에 추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겨울의 하코다테는 첫사랑과의 크리스마스처럼 수줍고 설레임을 간직한 도시다.

홋카이도 최남단, 홋카이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하코다테'는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않다. 하코다테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계3대야경을 자랑하는 도시, 일본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아기자기한 마을, 그리고 일본 최초의 개항도시로서의 역사가 그것이다.

하코다테 '아카렌가'의 정식명칭은 '가네모리아카렌카' 로써 일본 개항의 상징이다. 현재 하코다테의 최대의 관광단지로서 다양한 유리공예품, 오르골 등의 기념품은 물론, 아기자기한 카페가 즐비하다. 앤틱한 분위기에 취해 아카렌가를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 잊었던 첫사랑과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코다테의 아카렌카에서는 12월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판타지'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린다. 평소에도 아름다운 바닷가와 잔잔한 바닷물에 비치는 가스등 그리고 앤틱한 분위기로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지만,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야경에 비할 순 없다.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아카렌가의 가로수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지고, 건물과 어우러진 가스등과 유람선의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의 상징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누구나 어렸을 적 상상해보았던 따스한 크리스마스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1998년 시작된 크리스마스판타지는 하코다테 시의 자매도시인 캐나다의 하일팩스시로 부터 20m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약5만개의 전구를 달아 꾸민 것이 시초다. 이 전통을 이어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판타지를 위해 캐나다의 하일팩스시의 트리를 운송해와 꾸민다고 한다. 20m의 거대한 트리에 빼곡히 꾸며져 있는 5만여개의 전구는 로맨틱한 하코다테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아카렌가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연인들의 성지인 것은 아니다.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 밑으로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을 생각한다. 작은 도시의 작은 항구의 아름다운 야경은 그만큼 이러 저러한 사색에 잠기게 해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답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과 함께하는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는 두 사람의 영원을 약속할 로맨틱한 장소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는 부부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에겐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친구와 함께한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기억으로 사진 속에 남을 것이며,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겐 소중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하코다테의 아카렌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쁜 일상 속에서의 완벽한 탈출을 위해 이보다 더욱 환상적인 장소가 있을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하코다테로 떠나자